

# 한국인과 미국이민 한국인의 영적안녕과 지각된 건강상태 비교

박 정 숙\* · 장 희 정\*\*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인은 단일민족으로 한반도내에서 살아왔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지에 이민자가 많이 증가하였으며, 근래에 들어서는 미국 이민자가 급증하였다(Kim, 1999). 미국 통계로는 미국 내 한인이 약 107만 명인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1992년에 153만 명, 1998년에 20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아시아계 중에서 한국인이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osun Ilbo, 2002).

어느 나라이거나 이민자들은 외적 환경 변화, 가치관과 문화의 차이, 생활양식의 변화, 언어 장애 등으로 인해 이민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상태의 변화도 초래하게 된다. 특히 이민과 같은 삶의 위기와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평소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실존적 문제와 영적인 문제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되며(Burkhardt & Nagai-Jacobson, 1985),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영적인 자원을 활용하고자 한다(Carr,

1996).

영적안녕이란 절대자, 자신, 이웃, 환경과의 관계에서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내적 자원이 총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Burkhardt, 1989). 영적안녕에는 수직적 영역과 수평적 영역이 있는데, 우선 수직적 영역은 종교적인 안녕으로 절대자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안녕감이며, 수평적 영역은 존재적 안녕으로 종교와는 상관없이 삶의 목적과 만족을 지각하는 것이다(Paloutzian & Ellison, 1982). Watson (1988)에 따르면 건강은 마음, 신체, 영혼의 조화 혹은 통일이고, 아픔은 마음, 신체, 영혼의 부조화 혹은 내적 자아의 불일치이며, 이러한 아픔이 계속될 때 질환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영적안녕은 건강한 삶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Kim, 1998).

영적으로 안녕하게 되면 삶의 미스터리카 불확실성이 해결되고, 자신, 타인, 우주, 절대자 등과 상호 관련하게 되고 조화를 이루며, 또한 내적인 힘을 가지게 되므로(Burkhardt, 1989), 이를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역의 건강을 통합하는 힘이 될 수 있다. Waldfoegel(1997)은 종교와 건강의 관련성을 설명하면서, 첫째 종교적 신념이 있으면 사후세계에 대한 신념과 응집력을 통해 가치와 방향성을 가지게 되고, 둘째 기도,

\*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투고일 2003년 1월 24일 심사외뢰일 2003년 2월 10일 심사완료일 2003년 5월 28일

예배 참석 등의 종교적 행위를 통해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에 잘 대응할 수 있고, 셋째 절대자와의 관계를 인지하고 신앙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근원적인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넷째 식이 제한, 금연, 금주 등 종교적 제한을 따르다 보면 질병 발생률을 줄일 수 있으므로 종교가 건강증진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하였다.

미국은 이민으로 구성된 사회이니 만큼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고, 이민자에 대한 편견과 불평등이 존재하며, 소수 민족의 건강관리에 대한 자료도 미비한 실정이므로 (Ahijevych & Bernhard, 1994; Kim, 1995) 다양한 민족의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민 역사가 짧고 연구능력을 갖춘 연구자의 부재, 연구기금의 문제 등으로 미국이민 한국인에 대한 건강관련 연구는 미국 내에서 아직 많지 않고, 적절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Kim, 1995; Matthew et al., 1998), 이들의 건강상태가 우려된다고 볼 수 있다. Shin(2002)에 의하면 미국이민 한국인의 건강문제 중에서 위험 정도가 낮은 것은 비만이고, 중정도의 위험을 나타내는 것은 알콜 남용과 스트레스-적응문제이며, 고위험인 것은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위암, B형 간염, 간암 등이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미국이민 한국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건강증진행위(Sohng & Lee, 2000), 갱년기증상(Im & Meleis, 1999), 자궁암검사(Kim, Yu, Chen, Kim, Kaufman & Purkiss, 1999), 분만(Howard & Berbiglia, 1997)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영적안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 현지 생활에 적응해나가는 미국이민 한국인의 영적안녕과 지각된 건강상태를 연구하여, 이들의 상태가 본국인들과 어떻게 다르며 그 특성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과 미국이민 한국인의 영적안녕과 지각된 건강상태를 비교해 보고, 이 연구결과를 향후 한국인과 미국이민 한국인을 위한 영적증제가 포함된 차별화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국 현지 건강관련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 1) 한국인과 미국이민 한국인의 영적안녕과 지각된 건강상태 정도를 파악하고 비교한다.

- 2) 한국인과 미국이민 한국인의 영적안녕과 지각된 건강상태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한국인과 미국이민 한국인의 영적안녕 차이를 파악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인과 미국이민 한국인의 영적안녕과 지각된 건강상태 정도를 비교하기 위한 비교조사연구(comparative survey study)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한국인의 경우는 2001년 9월부터 11월, 미국이민 한국인은 2000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한국인은 영남 지역에 위치한 교회 4곳, 성당 1곳, 절 3곳에서 편의 표집하였고, 미국이민 한국인은 시카고지역에 위치한 교회 10곳, 성당 2곳, 절 2곳에서 편의 표집하였다. 연구대상에서 미국 내 한인교회의 숫자가 많아진 이유는 미국이민 한국인의 70%가 기독교인이고, 시카고 지역 전화번호부의 종교기관 분포 역시 교회가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비율에 맞게 종교기관 수를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은 18세 이상, 종교기관에 등록하여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자, 현재 병원을 방문할 정도의 특별한 질병 상태가 아닌 자, 한글을 이해하고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는 자, 연구 참여를 허락한 자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한국인 250명, 미국이민 한국인 250명으로 하였는데, 이중 기록이 누락되거나 미회수된 자료를 제외한 411명(한국인은 교회 128명, 성당 36명, 절 41명, 미국이민 한국인은 교회 140명, 성당 32명, 절 34명)을 본 연구의 최종분석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설문지 회수율은 한국인의 경우 82.0%, 미국이민 한국인은 82.4%이었다.

### 3. 연구도구

#### 1) 영적안녕

영적안녕 측정도구는 Paloutizian과 Ellison(1982)에 의하여 개발된 도구를 연구자가 번역하고 수정보완해

서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점 척도의 20문항짜리 도구로서 2개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존적 안녕 영역 10문항과 종교적 안녕 영역 10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11개의 긍정적 문항과 9개의 부정적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문항은 점수를 역으로 환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안녕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0.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0.82이었고, 하부영역 신뢰도를 살펴보면 실존적 안녕 영역의 Cronbach's  $\alpha$ 는 0.66, 종교적 안녕 영역의 Cronbach's  $\alpha$ 는 0.73이었다.

#### 2) 지각된 건강상태

지각된 건강상태는 안녕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는 건강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을 말하며(WHO, 1947), Northern Illinois University에서 개발한 Health Self Rating Scale로서 자신이 평가하는 현재 건강상태, 1년 전과의 건강상태 비교, 일하면서 느끼는 건강상태의 문제 평가, 동년배와의 건강상태를 비교하는 문항으로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구의 3문항은 3점 척도, 1문항은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지각하는 건강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73이었다.

#### 4. 자료수집

기관의 책임자에게 자료수집 요청 편지를 보내고, 허락을 받은 기관을 방문하여 설문지를 전달하였다. 종교기관의 책임자 혹은 대리인이 예배, 미사 혹은 법회 후에 설문지의 취지를 설명하고 배포하였다. 그리고 2주 후에 다시 방문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노인들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연구조원을 파견하여 설문지를 읽어주고 응답하게 하였다.

####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종교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동질성 검증은  $\chi^2$  test 분석하였다. 영적안녕과 지각된 건강상태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한국인과 미국이민 한국인을 비교하기 위해 교육수준과 가족수입을 공변수로 한 ANCOVA로 분석하였다. 일반

적인 특성과 종교적 특성에 따른 영적안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ANOVA를 이용하였고, ANOVA 후 사후 검정으로는 Duncan test로 분석하였다. 영적안녕과 지각된 건강상태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한국인과 미국이민 한국인 모두 연령별로는 36-50세가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여자가 많았다. 교육정도는 한국인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가 59명(28.9%)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이하 44명(21.6%), 전문대학 44명(21.6%), 대학교 42명(20.6%), 대학원 15(7.4%)의 순이었으나, 미국이민 한국인은 대학교 졸업자가 97명(47.5)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35명(17.2%), 고등학교 34명(16.7%), 전문대학 26명(12.7%), 고등학교 이하 12명(5.9%)의 순으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59.397$ ,  $p=0.000$ ). 가족수입에서는 한국인은 충분하다 106명(51.7%), 부족하다 94명(45.9%), 매우 충분하다 5명(2.4%) 순으로 응답한 것에 비해, 미국이민 한국인은 충분하다 123명(60.7%), 부족하다 63명(30.6%), 매우 충분하다 18명(8.7%)으로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숫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15.029$ ,  $p=0.001$ ).

결혼상태는 두 집단 모두 기혼이 많았으며, 최근 의학적 진단을 받은 군이 한국인은 63명(31.2%), 미국이민 한국인은 57명(27.9%)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모두 기독교인이 많았다. 이상의 결과로 한국인과 미국이민 한국인의 일반적인 특성은 교육정도, 가족수입을 제외하고는 동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 2. 대상자의 종교적 행위 정도

종교기관 참석빈도를 살펴보면, 한국인은 매주 참석한다가 129명(62.9%)이었으며, 한달에 1번 이하가 46명(22.4%), 한달에 2-3번이 22명(10.7%)순으로 나타났고, 미국이민 한국인은 매주 참석한다가 161명(78.2%)이고, 한달에 2-3번이 33명(16.0%), 한달에 1번 이하가 11명(5.3%)으로 나타나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27.074$ ,  $p=0.000$ ). 기도횟수는 두 집단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and Korean-American

Characteristics	Categories	Korean(n=205)		Korean-American(n=206)		χ <sup>2</sup>	p
		N(%)	N(%)	N(%)	N(%)		
Age	35 and under	46(22.4)	28(13.6)	6.032	0.110		
	36-50	95(46.3)	99(48.1)				
	51-65	42(20.5)	52(25.2)				
	66 and up	22(10.7)	27(13.1)				
Gender	Male	54(26.6)	68(33.0)	2.006	0.162		
	Female	149(73.4)	138(67.0)				
Education	Less than HS	44(21.6)	12( 5.9)	59.397	0.000		
	High School	59(28.9)	34(16.7)				
	Junior College	44(21.6)	26(12.7)				
	College	42(20.6)	97(47.5)				
	Graduate School	15( 7.4)	35(17.2)				
Family Income	Insufficient	94(45.9)	63(30.6)	15.029	0.001		
	Sufficient	106(51.7)	125(60.7)				
	More than sufficient	5( 2.4)	18( 8.7)				
Marital Status	Single	35(17.1)	20( 9.7)	5.702	0.127		
	Married	153(74.6)	163(79.1)				
	Divorced/separated	5( 2.4)	9( 4.4)				
	Widowed	12( 1.2)	14( 6.8)				
Current Medical Diagnosis	Yes	63(31.2)	57(27.9)	0.514	0.272		
	No	139(68.8)	147(72.1)				
Religion	Protestant	128(62.4)	140(68.0)	1.424	0.491		
	Catholicism	36(17.6)	32(15.5)				
	Buddhism	41(20.0)	34(16.5)				

모두 자주 한다가 가장 많았으며, 성경(불경)읽기는 한국인은 거의 읽지 않는다가 81명(29.5%), 자주 읽는다 66명(32.2%), 보통이다가 58명(28.3%)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이민 한국인은 자주 읽는다가 77명(37.4%), 보통이다가 71명(34.5%), 58명(28.2%)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한국인과 미국이민 한국인의 종교적

특성은 종교기관 참석빈도를 제외하고는 동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 3. 영적안녕 정도

한국인의 영적안녕 정도는 평균 3.17, 미국이민 한국

<Table 2> Religious characteristics of Korean and Korean-American

Characteristics	Categories	Korean(n=205)		Korean-American(n=206)		χ <sup>2</sup>	p
		N(%)	N(%)	N(%)	N(%)		
Worship Attendance	Every week	129(62.9)	161(78.2)	27.074	0.000		
	2-3 times/month	22(10.7)	33(16.0)				
	under 1 time/month	46(22.4)	11( 5.3)				
	No response	8( 3.9)	1( 0.5)				
Pray	Often	93(45.4)	101(49.0)	1.177	0.555		
	Moderately	63(30.7)	70(34.0)				
	Rarely	42(20.5)	35(17.0)				
	No response	7( 3.4)					
Bible Reading (Buddhist Classics Reading)	Often	66(32.2)	77(37.4)	5.960	0.051		
	Moderate	58(28.3)	71(34.5)				
	Rarely	81(29.5)	58(28.2)				

<Table 3> Comparison of spiritual well-being score between Korean and Korean-American

scale	subscale	Korean(n=205)	Korean-American(n=206)	F	p
		Adjusted Mean±SD	Adjusted Mean±SD		
Spiritual well-being		3.17±.48	2.63±.23	86.981	0.000
	Existential well-being	3.17±.43	2.55±.26	98.340	0.000
	Religious well-being	3.16±.63	2.71±.27	28.413	0.000

<Table 4> ANCOVA on the spiritual well-being score

source	ss	df	MS	F	p
Corrected model	26.891	3	8.96	86.981	0.000
Education	6.597	1	6.60	1.341	0.248
Family income	4.294	1	4.29	0.463	0.497
Error	50.263	369	0.14		

인은 평균 2.63이었다. 집단간의 차이를 보기 위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일반적 특성인 교육정도와 가족수입을 공변수로 하여 ANCOVA로 검증한 결과, 한국인이 미국 이민 한국인보다 영적안녕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86.981, p=0.000).

영적 안녕의 하부 영역인 실존적 안녕은 한국인은 평균 3.17점, 미국이민 한국인은 평균 2.55점이고 종교적 안녕은 한국인은 평균 3.16점, 미국이민 한국인은 평균 2.71점으로 하부 영역에서도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4. 지각된 건강상태

지각된 건강상태 정도의 집단간 차이를 보기 위해 교육정도와 가족수입을 공변수로 하여 ANCOVA검증을 한 결과, 한국인은 평균 2.37, 미국이민 한국인은 2.54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5.267, p=0.000)<Table 5, 6>.

5. 영적안녕과 지각된 건강상태와의 상관관계

한국인과 미국이민 한국인의 영적안녕과 지각된 건강상태 정도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한국인은 영적안녕의 하부영역인 실존적 안녕과 지각된 건강상태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r=0.209, p=0.006), 미국이민 한국인은 영적안녕과 지각된 건강상태

<Table 5> Comparison of perceived health status score between Korean and Korean-American

scale	Korean(n=205)	Korean-American(n=206)	F	p
	Adjusted Mean±SD	Adjusted Mean±SD		
perceived health status	2.37±.51	2.54±.46	15.267	0.000

<Table 6> ANCOVA on the perceived health status score

source	ss	df	MS	F	p
Corrected model	9.745	3	3.248	15.267	0.000
Education	2.773	1	2.773	13.034	0.000
Family income	2.146	1	2.146	10.084	0.000
Error	84.470	397	0.213		

<Table 7>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perceived health status r(p)

	Subjective health status	
	Korean(n=205)	Korean-American(n=206)
	r(p)	r(p)
Spiritual well-being	0.104(0.187)	-0.047(0.507)
Existential well-being	0.209(0.006)	-0.084(0.232)
Religious well-being	-0.010(0.899)	0.002(0.974)

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6. 한국인과 미국이민 한국인의 일반적 특성과 종교적 행위에 따른 영적안녕 차이

한국인의 영적안녕 정도는 결혼상태, 종교, 종교기관 참석빈도, 기도, 성경(불경) 읽는 횟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이민 한국인의 경우에는 기도와 성경(불경) 읽는 횟수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경우, 이혼이나 별거군의 영적안녕 정도가 3.58로 가장 높았으며 기혼자 군 3.23, 사별 2.98, 독신 2.89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5.700, p=0.001), 사후검정으로 Duncan 검정을 한 결과 독신/사별 군에 비해서 이혼/별거 군이 영적 안녕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에 따른 영적안녕 정도의 차이를 보면 기독교인이 평균 3.26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톨릭 3.18, 불교 2.9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F=8.140, p=0.000), 이를 Duncan 검정한 결과 기독교와 가톨릭

<Table 8> Comparison of spiritual well-being according to general and religious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Korean (n=205)			Korean-American (n=206)				
		M±SD	t/F	p	Duncan	M±SD	t/F	p	Duncan
Age	1. 35 and under	3.01± .50	2.130	0.098		2.57± .20	1.154	0.328	
	2. 36-50	3.22± .48				2.63± .21			
	3. 51-65	3.26± .43				2.63± .24			
	4. 66 and up	3.12± .49				2.69± .26			
Gender	1. Male	3.24± .46	1.1879	0.236		2.60± .27	-1.187	0.237	
	2. Female	3.14± .49				2.64± .20			
Education	1. Less than HS	3.22± .43	2.197	0.072		2.71± .32	0.826	0.510	
	2. High School	3.18± .50				2.63± .24			
	3. Junior College	2.97± .52				2.66± .23			
	4. College	3.28± .42				2.60± .21			
	5. Graduate School	3.21± .49				2.61± .19			
Family Income	1. Insufficient	3.14± .52	0.812	0.446		2.64± .22	0.840	0.920	
	2. Sufficient	3.17± .46				2.62± .23			
	3. More than sufficient	3.43± .44				2.64± .21			
Marital Status	1. Single	2.89± .50	5.700	0.001	3>1,4	2.56± .22	2.422	0.067	
	2. Married	3.23± .47				2.62± .21			
	3. Divorced/separated	3.58± .50				2.75± .26			
	4. Widowed	2.98± .41				2.73± .31			
Current Medical Diagnosis	1. Yes	3.14± .48	0.450	0.650		2.65± .20	-1.059	0.291	
	2. No	3.15± .48				2.62± .23			
Religion	1. Protestant	3.26± .50	8.140	0.000	1,2>3	2.64± .24	2.342	0.099	
	2. Catholicism	3.18± .41				2.55± .18			
	3. Buddhism	2.90± .37				2.67± .18			
Worship Attendance	1. Every week	3.36± .45	25.374	0.000	1>2,3	2.63± .21	1.113	0.331	
	2. 2-3 times/month	3.02± .41				2.63± .27			
	3. under 1 time/month	2.82± .32				2.53± .27			
Pray	1. Often	3.35± .47	28.043	0.000	1,2>3	2.68± .17	9.841	0.000	1,2>3
	2. Moderately	3.21± .41				2.63± .26			
	3. Rarely	2.70± .32				2.49± .25			
Bible Reading (Buddhist Classics Reading)	1. Often	3.47±0.41	24.373	0.000	1>2>3	2.69±0.17	8.230	0.000	1,2>3
	2. Moderately	3.24±0.46				2.65±0.26			
	3. Rarely	2.91±0.43				2.53±0.22			

릭교인이 불교신자에 비해서 영적 안녕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기관에 매주 참석하는 군의 영적안녕이 3.36으로 가장 높았으며 한 달에 2-3회 참석하는 사람 3.02, 한 달에 1회 이하 참석하는 사람 2.82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F=25.374$ ,  $p=0.000$ ), 이를 Duncan 검정한 결과 매주 참석하는 군이 한 달에 2-3회나 1회 이하로 참석하는 군에 비해서 영적 안녕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도는 자주 한다는 영적 안녕 평균 3.35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 3.21, 잘 하지 않는다 2.70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28.043$ ,  $p=0.000$ ), 이것을 Duncan 검정을 한 결과 자주 한다는 군과 보통인 군이 잘 하지 않는다는 군에 비해서 영적 안녕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불경) 읽는 빈도는 자주 읽는다 군이 영적안녕 평균 3.47로 가장 높았고, 보통 읽는다 군 3.24, 잘 읽지 않는다 군 2.91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F=24.373$ ,  $p=0.000$ ), 이를 Duncan 검정을 한 결과 잘 읽지 않는 군보다는 보통인 군이, 보통인 군보다는 자주 읽는 군이 영적 안녕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국이민 한국인의 영적 안녕 정도를 살펴보면, 기도를 자주 하는 군의 영적안녕이 평균 2.68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 군 2.63, 잘 하지 않는다 군 2.49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F=28.043$ ,  $p=0.000$ ), 이를 Duncan 검정한 결과 자주 하는 군과 보통인 군이 잘 하지 않는다 군에 비해서 영적 안녕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불경) 읽는 빈도는 자주 읽는 군이 평균 2.69로 가장 높았고, 보통 군 2.65, 잘 읽지 않는 군 2.53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F=24.373$ ,  $p=0.000$ ), 이것을 Duncan 검정한 결과 보통 군과 자주 읽는 군의 영적 안녕 정도가 잘 읽지 않는 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 IV. 논 의

한국인과 미국이민 한국인의 일반적인 특성이 동질한지를 검정한 결과 연령, 성별, 결혼상태, 최근의 의학적인 진단, 종교, 기도, 성경(불경) 읽기는 동질적이었으나 교육정도, 가족수입, 종교기관 참석회수, 종교기관 회원

수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한국인은 고등학교 이하 졸업과 고등학교 졸업이 103명(50.5%)으로 가장 많은데 비해, 미국이민 한국인은 대학교 졸업이 97명(47.5%)으로 학력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이는 미국이민을 위해서는 영어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므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이민의 기회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가족수입은 한국인은 충분하다와 매우 충분하다가 110명(54.1%)인데 비해, 미국이민 한국인은 충분하다와 매우 충분하다가 143명(69.4%)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국이민을 선택한 사람들의 경제적인 수준이 교육수준에 비례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에 비해 이민 전부터 더 높았거나 혹은 미국생활에서 경제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기독교인이 한국인은 62.4%, 미국이민 한국인은 68.0%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 내 한인 종교기관의 비율에 준하여 자료 수집을 하여 생긴 결과이므로, 한국인의 경우 모집단을 대표하는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 내에 거주하는 한국인 중 기독교인 비율은 전체인구의 34.7%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sun Ilbo, 2002). 종교기관 참석회수는 한국인은 매주 참석한다가 129명(65.5%)인데 비해, 미국이민 한국인은 161명(78.5%)으로 높게 나타났다. Chosun Ilbo (2002)에 의하면 미국이민 한국인의 70%가 기독교인이며, 이들 중 80%가 매주 교회에 참석하는데, 주로 미국 전역에 흩어진 4000여 개의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회 참석이 종교적 행위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교류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고 하였다. Hurh와 Kim(1990)의 연구에서도 미국이민 한국인들이 한인교회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기를 높일 있다고 하였으며, Choudhry(1998)도 종교생활을 통해서 이민 여성들이 어려움과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미국이민 한국인의 경우 한국인에 비해 기독교인이 더 많고, 교회 참석 횟수가 더 많은 것은 종교기관 참석을 통해 대인관계를 유지하여 이민사회에 잘 적응하고자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한국인의 영적안녕은 평균 3.17로 동일한 도구를 이용한 선행연구에서 한국 성인 대상으로 연구한 Choi(1991)의 3.39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hoi(1996)의 3.48점,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Kim(1998)의 3.64점, 학생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hoi와 Kim(1998)이 3.30점,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한 Kim과

Hong(1998)의 3.25점보다 낮았으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Sung(1998)의 2.64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경우에 영적 안녕 정도가 더 높다고(Choi, 1991; Kim, 1998)보고 하고 있으나 본 연구 대상자는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안녕 정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향후 영적안녕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일반인, 의료인, 환자의 영적안녕을 비교하는 연구 및 연령에 따른 영적안녕 정도를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민 한국인의 영적안녕은 평균 2.63점으로 이민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적안녕을 연구한 선행연구가 없어서 비교하기 어려우나 본 연구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3.17점 보다 상당히 낮았으며, 미국에서 직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Fernsler 등(1999)의 연구에서 보고한 3.46점보다도 낮았다. 이는 한국인의 미국이민 역사 100년 동안 양적으로는 많이 팽창되었으나, 아직 주류 사회에 동화되지 못하고 미국에 살면서도 주인의식이 생기기 않아 이방인으로 느끼는 소외감(Chosun Ilbo, 2002), 문화와 언어의 차이 등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므로 영적 안녕정도를 높이기 위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민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이민 한국인의 경우, 영적 안녕의 하부 영역에서 신과 관련된 종교적 안녕이 2.71점으로 삶의 목적 및 삶의 만족과 관련된 실존적 안녕 2.55점보다 더 높게 나타나 실존적 안녕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들과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Choi, 1991; Kim, 1998; Kim & Hong, 1998; Seoken & Carson, 1987). 이는 미국 이민 한국인들의 현실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이민생활로 인해 실존적 안녕은 낮으나 종교가 생활의 중심이 되고 신앙을 통해 소외감을 해소하고 고민을 해결함으로써 종교적 안녕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미국이민 한국인이 2.54점으로 한국인 2.37점 보다 더 좋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미국이민 한국인과 한국인의 건강상태를 비교한 Song과 Lee(2000)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미국이민 한국인의 지각된 건강상태가 더 좋은 이유는 이들의 교육정도와 가족수입이 더 좋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성인을 대상으로 지각된 건강상태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영적안녕 총점과 지각된 건강상태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여러 연구를 분석하여 건강상태와 종교적 안녕과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한 Zorn과 Johnson(1997)의 결과와는 일치하나, 지각된 건강상태와 영적안녕 정도 간에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Sung(1998), Kim과 Hong(1998), Kim과 Park(1999)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영적안녕과 건강상태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여러 가지 매개변수를 조절하고 두 변수간의 관계만을 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한국인의 경우, 실존적 안녕과 지각된 건강상태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영적안녕 중 실존적 안녕 측면이 건강상태를 잘 반영한다는 Fernsler, Klemm과 Miller(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실존적 안녕은 수평적 관계 차원으로 나 자신의 삶의 목적, 내 삶에 대한 만족 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건강 자가 관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종교적 특성에 따른 영적안녕의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인에서 기독교 군과 가톨릭교 군이 불교 대상자보다 영적안녕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보다 영적안녕정도가 높다는 Oh(1997), Kim 등(1999), Sloan, Bagiella와 Powell(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불교의 경우 현세의 영적안녕보다는 윤회사상의 영향으로 다음 생애에 좋은 인연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고행을 중시하기(Cho, 1994)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과 미국이민 한국인 모두 기도를 자주하고 성경을 자주 읽는 군에서 영적 안녕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종교생활이 영적 안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Choi와 Hur(1996), Oh(1997), Kim과 Hong(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Chapman(1986)도 인간이 신과의 바른 관계를 가짐으로써 영적으로 편안해 진다고 했고 Sloan등(1999)도 종교적인 지지가 영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종교생활이 영적 안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보면, 미국이민 한국인은 한국에 있는 한국인보다 영적안녕은 낮으나 지각된 건강상태는 비교적 높은 편이며, 인구학적 변수 중 종교생활이 영적안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한국인과 미국이민 한국인은 영적안녕과 지각된 건강상태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앞으로 추후 연



구를 실시하여 민족-문화적인 배경과 생활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고 영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인과 생활환경이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 한국인의 영적안녕과 지각된 건강상태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여 향후 영적안녕 개념이 포함된 바람직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자료 수집은 한국인의 경우 2001년 9월부터 11월까지 경상도 지역에 위치한 종교기관을 중심으로, 미국인 한국인의 경우 2000년 8월부터 10월까지 시카고 지역에 위치한 종교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인 205명, 미국인 한국인 206명 총 4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로는 Paloutzian과 Ellison(1982)의 영적안녕 측정도구와 North Illinois University에서 개발한 지각된 건강상태 척도를 사용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test, ANCOVA, ANOVA, Duncan tes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인의 영적안녕은 평균 3.17, 미국인 한국인은 평균 2.63로 나타나 두 집단간 영적안녕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86.981, p=0.000$ ).
2. 영적안녕의 하위 영역은 한국인은 실존적 안녕 3.17 종교적 안녕이 3.16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인 한국인은 실존적 안녕 2.55, 종교적 안녕 2.71로 나타났다.
3. 지각된 건강상태는 한국인은 평균 2.37, 미국인 한국인은 2.54로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5.267, p=0.000$ ).
4. 영적안녕과 지각된 건강상태와의 상관관계에서 한국인과 미국인 한국인 모두에서 영적안녕 총점과 지각된 건강상태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 영적안녕의 하부영역을 살펴보면, 한국인의 경우, 실존적 안녕과 지각된 건강상태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r=0.209, p=0.006$ ), 나머지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5. 한국인의 영적안녕은 결혼상태( $F=5.700, p=0.001$ ), 종교의 종류( $F=8.140, p=0.000$ ), 종교

기관 참석빈도( $F=25.374, p=0.000$ ), 기도( $F=28.043, p=0.000$ ), 성경(불경) 읽는 횟수( $F=24.373, p=0.000$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미국인 한국인은 기도( $F=9.841, p=0.000$ ), 성경 읽는 횟수( $F=8.230, p=0.000$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미국인 한국인은 본국거주 한국인보다 영적안녕은 낮으나 지각된 건강상태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문화적 혹은 생활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고 영적중재가 포함된 전인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Ahijevych, K., & Bernhard, L. (1994). Health-promoting behaviors of African American women. *Nurs Res, 43*(2), 86-89.
- Burkhardt, M. A., & Nagai-Jacobson, M. G. (1985). Dealing with spiritual concerns of clients in the community. *J Community Health Nurs, 2*(4), 194-198.
- Burkhardt, M. A. (1989). Spirituality: an analysis of the concept. *Holist Nurs Pract, 3*(3), 69-77.
- Carr, I. (1996). Cultural exchange. *Nurs Times, 92*(35), 24-26
- Cho, M. K. (1994). *In-depth Idea of Korea*. Seoul: Woosuk.
- Choi, S. S. (1991). *A correlational study on spiritual wellbeing, hope and perceived health status of urban adul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 Choi, S. S., & Hur, H. K. (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job satisfaction for nurses. *J Korean Nurs Admi Acad Soc, 2*(2), 109-120.
- Choi, S. S., & Kim, J. S. (1998). Study on spiritual well-being, hope and self-esteem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 4*(2), 331-342.
- Choudhry, U. K. (1998). Health promotion

- among immigrant women from India living in Canada. *Image*, 30(3), 269-274.
- Howard, J. Y., & Berbiglia, V. A. (1997). Caring for childbearing Korean women. *Journal of Obstetrics, Gynecologic & Neonatal Nursing*, 26(6), 665-671.
- Im, E., Meleis, A. L., & Lee, K. A. (1999). Cultural competence of measurement scales of menopausal symptoms: use in research among Korean women. *Int J of Nurs Stud*, 36(6), 455-463.
- Kim, C. N., & Hong, W. H. (1998). A study on spiritual well-being of hemodialysis patient. *J Korean Acad Nurs*, 28(4), 1036-1046.
- Kim, C. N., & Park, Y. S. (1999). A correlational study on spiritual wellbeing, hope and perceived health status of teachers. *Korean J Occupational Health Nurs*, 8(1), 92-102.
- Kim, C. S., Jun, S. S., Hwang, B. S., & Kim, E. Y. (1999). Study on spiritual well-being and family support of cancer pati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and Promotion*, 16(2), 67-80.
- Kim, K., Yu, E. S. H., Chen, E. H., Kim, J., Kaufman, M., & Purksss, J. (1999). Cervical cancer screening knowledge and practices among Korean-American women. *Cancer Nurs*, 22(4), 297-302.
- Kim, M. H. (1998).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nopausal symptoms and spiritual well-being, *J Korean Acad Women's Health Nurs*, 4(1), 38-51.
- Kim, M. T. (1995). Culture influences on depression in Korean Americans. *The J of Psycosocial Nurse*, 33, 13-18.
- Korean-American : America Immigration, 100 year. (2002, January 15). *The Chosun Ilbo*, p. 26
- Fernsler, J. I., Klemm, P. D., & Miller, M. A. (1999). Spiritual well-being and demands of illness in people with colorectal cancer. *Cancer Nurs*, 22(2), 134-140.
- Matthews, D. A., McCullough, M. E., Larson, D. B., Koenig, H. G., Swyers, P. M., & Milano, M. G. (1998). Religious commitment and Health status: A review of the research and implications for family medicine. *Arch Fam Med*, 7(2), 118-124.
- Oh, P. J. (1997). A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in people with cancer. *J Korean Acad Adult Nurs*, 9(2), 189-198.
- Paloutzian, R. F., & Ellison, C. W. (1982). *Loneliness :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 therapy*. Jom Wiley & Sones; New York.
- Shin, J. K. (2002). Help-seeking behaviors by Korean immigrants for depression. *Issues in Ment Health Nurs*. 23(5), 461-476.
- Sloan, R. P., Bagiella, E., & Power, T. (1999). Religion, spirituality, and medicine. *Lancet*. 353(9153) Feb 20, 664-667.
- Soeken, K. L., & Carson, V. B. (1986). Study measures nurse's attitudes about providing spiritual care. *Health Prog*, 7(3), 52-55.
- Sohng, K. Y., & Lee, S. Y. (2000). A survey on perceived health status and health promoting lifestyle pattern between Korean elderly and Korean-American elderly. *J Korean Acad Fundamental Nurs*, 7(3), 401-414.
- Sung, M. S. (1998). *A correlation study on spiritual wellbeing, hope, and perceived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The Keimyung University of Korea, Daegu.
- Waldfogel, S. (1997). Spirituality in medicine. *Prim Care*, 24(4), 963-976.
- Watson, J. (1988). *Nursing: Human science and human care, a theory of nursing*. National League for Nursing: New York.
- Zorn, C. R., & Johnson, M. T. (1997). Religious well-being in noninstitutionalized

elderly women. *Health Care Women Int*, 18, 209-219.

- Abstract -

## A Comparative Study on Spiritual Well-being and Perceived Health Status between Korean and Korean-American

*Park, Jeong-Sook\* · Jang, Hee-Jung\*\**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spiritual well-being and perceived health status between Korean and Korean-American and to provide basic data that might develop comprehensive health care program including spiritual dimension. **Method:** The subject of the study were 411 adults chosen from religious organization located in Gyeongsang Province, Korea and Chicago, U.S.A.. The instruments used in the study were

Spiritual Well-being Scale by Paloutzian & Ellison and Health Self Rating Scale by North Illinois University. Analysis of data was done by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COVA, ANOVA and Duncan test with SPSS program. **Result:** 1) The mean score of spiritual well-being of Korean was 3.17 and Korean-American was 2.63,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2) Perceived health status of Korean was 2.37 and perceived health status of Korean-American was 2.54,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Conclusion:** According to this study, it is important to take into considerations spiritual aspects and cultural and environmental elements in developing the comprehensive health care program.

**Key words :** Korean, Korean-American, Spiritual well-being, Perceived health status

---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 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